소개

더 컬렉터블 VIII ‘르쿨트르’

뉴욕에서 공개되는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9 점

주요 정보:

- **더 컬렉터블**: 11 월 6 일부터 11 월 20 일까지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공개 및 판매하는 인기 컬렉션 타임피스
- **익스클루시브 르쿨트르 캡슐 컬렉션:** 1933 년부터 1981 년까지 미국 시장을 위해 제작한 타임피스 9 점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컬렉션
-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매뉴팩처 아틀리에 내 복원 워크숍의 인하우스 워치메이커들이 정성을 기울여 복원한 시계를 통해 살펴보는 예거 르쿨트르의 미국 진출 역사

예거 르쿨트르가 더 컬렉터블의 여덟 번째 캡슐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선된 9 점의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는 11 월 6 일 뉴욕에서 공개되며, 전 세계 수집가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에디션은 미국독립선언 250 주년을 기념해 뉴욕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더 컬렉터블 이벤트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헌정의 의미를 담아 아카이브 일부를 공개하고 미국에서 출시한 타임피스에 얽힌 매혹적인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메종은 1930 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의 오랜 인연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 캡슐 컬렉션은 미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시계들 중에서 엄선한 타임피스로 구성됩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

더 컬렉터블은 20 세기 중반에 탄생한 타임피스들을 엄선하고 복원해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프로그램입니다. 약 200 년에 걸친 메종의 창조적 유산을 기념하는 이번 컬렉션은 그 유구한 헤리티지를 조명합니다. 듀오플랜, 리베르소, 지오피직, 퓨처매틱, 메모복스 폴라리스 등 1920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에 제작된 17 점의 상징적인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전 세계에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으로 공개되는 이 타임피스들은 수집가들에게 각 타임피스가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이어갈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헤리티지를 향한 이러한 헌신은 매뉴팩처 내 자체 복원 워크숍이 있기에 가능하며, 이와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춘 브랜드는 업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이곳에서 10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는 각각의 타임피스를 정교하게 복원합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특성과 파티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무브먼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은 수작업으로 제작하거나 헤리티지 아카이브에 보관된 희소한 부품을 사용합니다. 박물관 수준의 엄격한 복원과 인증을 거친 각각의 타임피스는 이제 발레드주에서 시작된 고유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서 깊은 미국의 시그니처

특별한 이름: 미국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20 년대 후반, 메종은 이미 예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으며, 특히 정밀 기기와 1926 년 뉴욕에서 설립한 *Jaeger Inc.*를 통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매뉴팩처 아틀리에가 미국 전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시계에 르쿨트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1936 년, *예거 르쿨트르 미국 법인(LeCoultre S.H. of America)*이 뉴욕에 사무실을 오픈한 이후 르쿨트르 시계와 다이얼은 미국 시장에서 메종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뉴욕 사무실 오픈 기념 책자
1/3 페이지, 1936 년

미국 현지 시장을 고려한 전략: 미국은 엄격한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되는 시장으로, 시계의 가치와 사양에 따라 수입 관세가 인상될 수 있었습니다.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이러한 관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제작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시계 완제품이 아닌, 스위스 무브먼트와 다이얼, 핸즈를 대서양을 건너 운송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지에서 케이스를 제작한 후 시계를 조립하고, 조정 및 마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제도에 대한 대응은 타임피스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무브먼트는 17 개의 주얼을 갖추고 있었으며, '미조정(unadjusted)' 표시와 함께 관세 코드 VXN 이 부여됐습니다.

미국 케이스, 미국적인 특성: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맞춰 케이스를 특별히 디자인하고 현지에서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펼쳐졌습니다. 케이스는 주로 골드 필드(gold-filled) 구조 또는 14K 골드(585/1000)로 제작됐으며, 유럽에서 출시한 타임피스와는 다른 새로운 비율과 기하학적 구조, 형태를 선보였습니다. 1950 년대 초반에 공개한 예거 르쿨트르 파워매틱 노틸러스와 같은 모델은 이처럼 뚜렷한 미국식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조직이 미국인의 취향을 깊이 이해하고 기대 사항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 전달하면서 미국식 디자인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됐습니다. 세련된 드레스 워치부터 메모복스 딥 씨, 마스터 마리너 딥 씨 바라쿠다 또는 메모복스 폴라리스와 같은 대담한 디자인의 시계에 이르기까지 미국 시장의 수요에 맞춰 특화된 모델과 컬렉션이 등장했습니다. 시작은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점차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르쿨트르 1948 년, 광고

미국 문화 속 르쿨트르: 르쿨트르는 미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군 지휘관에서 재즈 뮤지션, 할리우드 스타에서 모터 레이서, 우주 시대의 주역에서 달 탐사 세대에 이르기까지, 르쿨트르는 현대 미국을 정의해 온 인물들과 늘 함께해 왔습니다.



미국 광고, 르쿨트르 메모복스 1969 년

르쿨트르 시대, 막을 내리다: 1970 년대에 이르러 '예거 르쿨트르'라는 사명이 매뉴팩처 아틀리에의 단일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르쿨트르' 시계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은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르쿨트르의 마지막 다이얼은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통합된 명칭인 예거 르쿨트르가 널리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9 점의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여덟 번째 더 컬렉터블 캡슐 컬렉션을 위해 선별한 타임피스는 193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 이끌어 온 기술적, 미학적 혁신의 깊이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유산이 한데

모여 예거 르쿨트르가 수십 년간 단순히 미국 시장을 위한 시계를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계 디자인 자체의 발전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초콜릿 브라운 컬러의 진귀한 **1933 년 리베르소**는 리베르소 전용으로 처음 개발한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410 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933 년에 출시된 이 칼리버는 6 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선구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타임피스는 과거 특별 주문을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초콜릿 브라운 컬러의 다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창기 리베르소 모델 중 하나의 비율을 반영한 스틸 케이스는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며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며, 풍부한 브라운 컬러는 수작업으로 제작한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조화를 이룹니다.

1942 년에 선보인 트리플 캘린더는 빠르게 성장하던 손목시계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컴플리케이션으로, 날짜, 요일, 월을 표시합니다. 실용적인 디자인을 우아하게 구현한 이 컴플리케이션은 세련된 취향과 탁월한 안목을 지닌 이들을 위해 탄생했으며,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자사 시계뿐 아니라 당대 저명한 워치메이커들에게도 이 칼리버를 공급했습니다. 트리플 캘린더는 시리즈 생산되는 손목시계를 위해 개발된 초기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매뉴팩처 아틀리에는 물론 워치메이킹 역사에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실용적인 컴플리케이션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47 년 트리플 캘린더는 독특한 소재 조합이 돋보입니다. 이 타임피스는 스틸 케이스와 18K 핑크 골드(750/1000) 베젤, 코퍼 컬러 다이얼 및 수작업으로 그레인 패턴을 장식한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갖추고 있으며,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색감을 연출합니다. 33mm 케이스 내부에는 스몰 세컨즈 카운터에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칼리버 494 가 장착됐습니다.

1952 년경에 제작한 트리플 캘린더 레퍼런스 2726 은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희소성을 자랑하는 이번 캡슐 컬렉션의 핵심 모델로, 메종 최초로 클래식한 라운드 케이스 대신 직사각형 케이스를 탑재한 트리플 캘린더입니다. 아워 마커는 케이스에 각인한 후 블랙 컬러로 래커 처리됩니다. 다이얼은 대담한 블루 데이트 마커를 갖추었으며, 희소한 18K 옐로우 골드(750/1000) 케이스는 수작업으로 제작한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균형을 이룹니다. 타임피스는 매뉴팩처 아틀리에의 3 세대 트리플 캘린더 무브먼트인 칼리버 484 를 탑재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년도에 세상을 떠난 자크-다비드 르쿨트르(Jacques-David LeCoultre)를 기리기 위해 1949 년에 출시한 헌정 모델이었습니다. 매뉴팩처 아틀리에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그는 메종의 발전과 전 세계적인 확장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트리플 캘린더 발췌문, 르쿨트르 카탈로그 1952 년

1937 년, 자크-다비드 르쿨트르는 에드몽 예거(Edmond Jaeger)와 협약을 맺고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로 합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며 오늘날 메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크-다비드 르쿨트르는 매뉴팩처 아틀리에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최초의 르쿨트르 시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총괄했으며, 진출 초창기 매뉴팩처 아틀리에를 이끌었습니다. 자크-다비드 르쿨트르의 지휘 아래, 메종은 슬림한 포켓 워치 '쿠토(Couteau)', 리베르소, 듀오플랜, 트리플 캘린더와 같은 대표작을 선보였습니다.

1949 년에 출시한 파워매틱은 오토매틱 시계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1950 년대 전반에 걸쳐 예거 르쿨트르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새롭게 특허를 취득한 칼리버 481 을 탑재한 타임피스는 다이얼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갖춘 최초의 손목시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셀프 와인딩' 또는 '오토매틱'으로 불렸지만, 파워매틱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등장한 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시계 제품군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됐습니다.



1950 년경에 제작한 예거 르쿨트르 **파워매틱 노틸러스**는 옐로우 골드 필드(gold-filled) 케이스의 베젤 상단을 가로지르는 독특한 러그가 특징입니다. 이 모델은 르쿨트르에서 소량 제작한 파워매틱 시계 중 하나로, 눈길을 사로잡는 러그를 갖춘 케이스 디자인 덕분에 다른 주요 워치메이커가 이 이름을 채택하기 훨씬 전인 1950 년대에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34.6mm 케이스 내부에는 혁신적인 칼리버 481 을 탑재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컬러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52 년 파워매틱은 전형적인 1950 년대 초반의 디자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비틀 러그는 1940 년대 주얼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고급스러운 무드가 돋보이며,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했던 당시 미국인의 취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칼리버 481 이 탑재된 타임피스로, 초창기 파워매틱 모델의 상징이었던 블랙 다이얼과 레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14K 옐로우 골드(585/1000) 케이스 및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컬러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예거 르쿨트르 딥 씨 제품 사양 안내서, 1960 년

1950 년대, 스쿠버 기술이 발전하면서 심해 다이빙은 위험한 군사 활동에서 점차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첫 다이빙 워치를 개발한 후 20 여 년에 걸쳐 해당 분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견고한 소재와 가독성이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갖춘 초기 다이빙 워치 모델은 일반 소비자를 위해 탄생한 1 세대 '툴' 워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 러버 스트랩을 장착한 **1968 년 마스터 마리너 딥 씨 '바라쿠다'**가 있습니다. 이 타임피스는 다이빙 기능이 없는 마스터 마리너 모델과는 달리 토노형 슈퍼 컴프레서 스틸 케이스와 크라운으로 작동하는 내부 회전 베젤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카탈로그에는 '바라쿠다'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시계를 구동하는 무브먼트인 칼리버 883 은 날짜 디스플레이도 탑재돼 있습니다.



1970 년경에 제작한 진귀한 **샤크 딥 씨**는 블랙 다이얼과 화이트 서브 다이얼이 대비를 이루며, 저명한 벨쥬 칼리버 72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타키미터 스케일을 장착해 다이빙 워치의 기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1959 년 이후, 샤크 딥 씨는 메종 최초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하고 세 개의 교체 가능한 베젤(다이빙, 텔레미터, 월드 타임)을 통합한 놀라운 도전으로 다이빙 워치의 기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시계는 다이빙 베젤만 갖춘 단일 베젤 모델입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40mm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는 120 미터 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하는 블랙 러버 스트랩이 장착됐습니다.



1972 년 메모복스 폴라리스 II 는 크고 입체적인 케이스, 그러데이션 블루 다이얼, 스카이 블루 컬러의 회전 베젤 등 전형적인 1970 년대 스타일의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이 타임피스에는 오리지널 버전과 같은 스틸 브레이슬릿이 장착됐습니다. 다이버에게 수면 위로 돌아갈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는 메모복스 알람 기능을 갖췄으며, 다이얼에 새겨진 HPG 로고로 확인이 가능한 칼리버 916 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첫 번째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고진동 무브먼트이며, 28,800vph(4Hz)의 진동수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길고 슬림한 케이스는 출시 당시 100 미터 방수 기능을 갖췄습니다.



1981 년경에 제작한 **코인 워치**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크릿 워치'는 속이 비어 있는 18K 골드(750/1000) 소재의 10 달러 동전 안에 울트라 씬 칼리버 839 를 숨기고 있습니다. 30mm 케이스의 두께는 4.3mm 에 불과합니다. 동전의 '앞면'을 열면 다이얼이 나타나고 '뒷면'은 케이스백 역할을 합니다. 3 시 방향 푸셔를 누르면 커버가 열리며, 이를 활용해 시계를 바깥쪽으로 펼쳐 무브먼트를 와인딩하거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버건디 컬러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함께 제공됩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이는 모든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에서 발췌한 자료 및 예거 르쿨트르가 20 세기 중반에 제작한 17 개의 대표 모델을 소개하는 참고용 서적인 더 컬렉터블스(The Collectibles)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서적은 각 타임피스를 역사적 맥락에서 소개하고 수집가에게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메탈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모델을 제외한 모든 타임피스에는 시계 스타일에 맞춰 수작업으로 제작한 새로운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타임피스의 오리지널 워치 박스와 보증서, 오리지널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도 함께 구성됩니다.

뉴욕에서 공개되는 여덟 번째 더 컬렉터블 캡슐 컬렉션

여덟 번째 더 컬렉터블 캡슐 컬렉션은 2026 년 11 월 6 일부터 20 일까지, 매디슨 애비뉴 701 번지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 플래그십 부티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입니다. 더 컬렉터블 타임피스는 11 월 6 일부터 jaeger-lecoultre.com 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하실 수 있으며, 컬렉션 공개 기간 동안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 컬렉터블 북은 jaeger-lecoultre.com 과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제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

jaeger-lecoultre.com